

2017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계룡산을 탐구하다'

8월, 계룡산에서 색을 보다

2017. 08. 23

박경수, 박덕근, 성민경, 연제호

지도교사 : 전준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월, 계룡산에서 색을 보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405 박경수, 2406 박덕근
1406 연제호, 1405 성민경

1. 탐사의 필요성

가. 탐사 동기

처음에 계룡산 탐사라는 주제를 받은 후 산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계룡산은 수많은 자연 경관들과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산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상징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를 들어 계룡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계룡산이 무엇인지, 어떤 산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룡산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여러 독특한 상징물을 통해 도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은 슬로건, 색, 서체 총 3가지의 상징물을 사용해 서울을 표현해 내고 있었다. 이 중 우리는 자연물인 계룡산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색'에 집중해 계룡산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색깔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산의 모습은 4계절 시시각각 변화하니 1년 전체를 대표하는 색채를 지금 찾고 선정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해 8월인 현재의 색채를 최대한 충실하게 담아 보기로 하였다.

<서울의 대표 색 예시>



나. 탐사 목적

계룡산(수통골, 동학사)을 탐방하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8월의 계룡산을 대표할 만한 의미있는 자연물을 사진에 담아 각각의 개체에서 색을 추출하고 이를 컬러

차트로 정리해 8월 계룡산의 대표색을 선정한다.

2. 탐사 과정

가. 탐사 일정&경로

1) 8월 21일:

10:00~12:00 - 팀 회의를 진행. 구체적인 활동 방안 & 방문할 장소를 선정.

12:00~13:00 - 점심식사

13:00~15:30 - 수통골의 계곡과 수통폭포를 방문함.

15:30~17:00 - 학교로 이동



2) 8월 22일:

10:00~11:00 - 동학사로 이동

11:00~13:00 - 동학사와 은선폭포 방문

13:00~14:00 - 점심식사

14:00~14.30 - 학교로 이동



3) 8월 23일:

09:00~12:00 - 발표 자료&포스터 제작

13:00~15:00 - 발표연습

나. 자료 수집 및 색 선정

1) 사진 촬영

계룡산(수통골, 동학사)를 오르며 자연물의 사진을 수집한다. 이때 다음 기준에 따라 색에 주목해 사진을 찍었다.

- 계룡산이 아니면 볼 수 없을 듯한 색깔
- 첫눈에 인상이 깊었던 색, 자주 눈에 띄었던 색깔
- 이 시기가 아니면 계룡산에서 볼 수 없을만한 색깔



2) 사진 선정

찍은 사진들을 놓고 팀원들끼리 사진과 찍힌 자연물에 대한 서로의 감상과 첫 인상에 대해 토의하여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계룡산을 충분히 녹여내었다고 보이는 8개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3) 색 추출 작업



사용 프로그램: OiColorPicker(블로거 “오농”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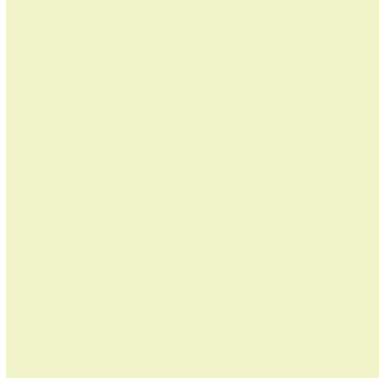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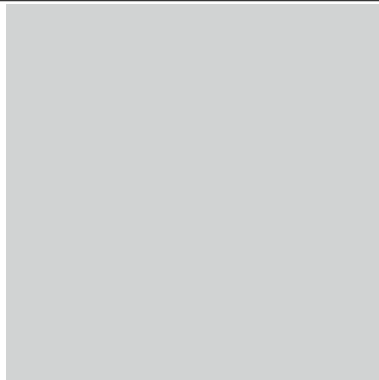


색상 추출 프로그램으로 마우스 후킹과 키보드 후킹을 이용하여 제작함. 그림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색을 추출할 수 있고, 16진수 색상값과 RGB 색상값을 확인 가능하고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색을 추출할 때는 그 사진을 봐서 첫눈에 가장 많이 띄는 색을 추출하려고 노력하였다.



3. 탐구 결과


가. 최종 선정한 8월 계룡산의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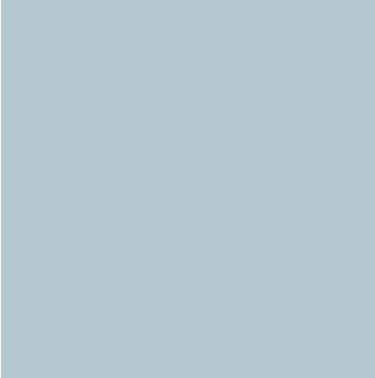
1) 제작한 컬러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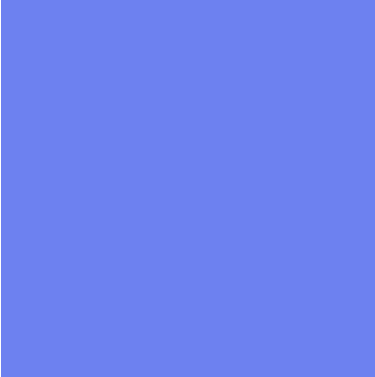
우리가 선정한 색들과 각 색의 컬러코드, 그리고 각각의 사진을 보며 느꼈던 감상이다.
색 코드는 각 색깔의 RGB 값을 16진수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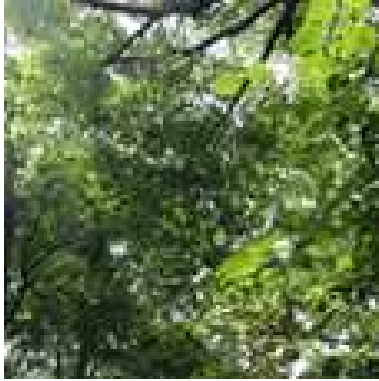

		<p>색 이름: 여름눈꽃색</p> <p>색 코드: #F1F4C9</p> <p>자연물: 사위질빵의 꽃</p> <p>감상&선정이유: 이 꽃은 녹색으로 가득 찬 숲에서 홀로 흰색으로 돋보였다. 꼭 겨울의 눈송이처럼 생겨 예뻐던 이 꽃은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다.</p>
		<p>색 이름: 은빛물방울색</p> <p>색 코드: #D1D3D3</p> <p>자연물: 수통골의 계곡을 수직으로 바라본 모습</p> <p>감상&선정이유: 계곡에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색을 생각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투명했다.</p>
		<p>색 이름: 짙은산안개색</p> <p>색 코드: #A8A9AD</p> <p>자연물: 계룡산 정상에 걸려 있는 안개</p> <p>감상&선정이유: 많은 비가 내릴 때는 미처 보지 못했지만, 비가 그친 후 구름과 하나되려는 안개들은 매우 인상깊었다.</p>

		<p>색 이름: 붉은절벽색</p> <p>색 코드: #B19995</p> <p>자연물: 계룡산의 몸체를 구성하는 바위</p> <p>감상&선정이유: 수통골의 정상부근에서 골짜기까지 깎아지른 듯 경사진 붉은 절벽과 흘러내리던 빗물은 감탄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p>
---	---	---

		<p>색 이름: 바위이끼색</p> <p>색 코드: #75872D</p> <p>자연물: 산길에 있는 바위와 나무에 분포한 이끼</p> <p>감상&선정이유: 계룡산은 항상 습한 것인지 바위와 나무에 이끼가 잔뜩 자라 있었다. 비가 와서 더욱 이끼의 생명력 넘치는 초록색이 부각된 듯하다.</p>
--	--	--

		<p>색 이름: 얼음계곡색</p> <p>색 코드: #BEC8CE</p> <p>자연물: 동학사의 계곡</p> <p>감상&선정이유: 계곡은 산에 흔하게 있는 것이지만 계룡산의 계곡만큼 푸른색을 띄는 곳은 없었다. 마치 들어가면 얼음이 만져질 듯한 시원한 색깔이 눈에 띄었다.</p>
---	---	---

		<p>색 이름: 달개비푸른색</p> <p>색 코드: #6D81F0</p> <p>자연물: 달개비의 꽃</p> <p>감상&선정이유: 계룡산의 산길 주변에 흔하게 피어있는 꽃이었다. 작지만 또렷히 나타나는 푸른 빛깔이 굉장히 예뻐다. 흔한 꽃이지만 산속이었기에 더 살아있는 색을 가졌다.</p>
---	---	---

		<p>색 이름: 계룡숲녹색 색 코드: #6D81F0 자연물: 동학사의 깊은 숲 감상&선정이유: 계룡산의 자랑 중 하나인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다. 밝은 햇빛과 어우러져 있는 반투명한 나뭇잎들은 편안하고 생기 있어 보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다. 왜 계룡 8경 중 하나가 숲인지 알 것 같다.</p>
---	---	--

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우리가 느낀 8월의 계룡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색깔 8개를 제시함으로써 이 시기의 계룡산의 아름다움과 특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제언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수통골과 동학사 두 곳밖에 탐방하지 못하였고, 계룡산의 깃대 종인 호반새와 깽깽이풀을 실제로 보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또한 계룡산이 8월 여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과 다른 색채를 띠는 때의 대표색을 찾아서 탐사해 보고 계룡산의 4계절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상징 색채를 정해서 ‘계룡산의 색채달력’ 등과 같은 계룡산 자연의 아름다움을 반영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탐사에서는 색에 집중하였지만 기회가 있다면 서울시의 예처럼 계룡산을 나타내는 슬로건이나 서체를 제작해 아름다운 계룡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싶다.

추가적으로 색깔의 선정에는 우리 팀원들의 주관이 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계룡산의 전체 상징색을 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출한 여러 색들을 계룡산 관계자와 계룡산을 탐방해 본 일반 등산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해 객관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5. 활동 후기

연제호: 탐사 활동 도중 찾은 자연의 색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러나 컴퓨터에서 색을 뽑아보니 내가 느꼈던 그 색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박경수: 하나의 사진을 찍고 색깔을 찾기 위해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막상 경관에 도착해서 자연을 바라보게 되니 그 보람이 느껴졌다.

또한 계룡산을 무작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걷다 보니 계룡산을 확실히 파악하고 다른 산과는 다른 그만의 특징을 느끼게 된 것 같았다.

박덕근: 처음과는 다른 주제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을것 같았지만, ‘계룡산’이라는 큰 산은 바뀐주제를 소화해 내는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 지난해 인자탐에서 같은 주제로 세종을 탐사하였던 팀을 생각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 고민을 조금하였으나, 산에는 도심보다 훨씬 다양한 색이 있을 것 같아 확신을 가지고 탐사를 진행하였고 나쁘지 않은 결과를 빼낸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이번 인자탐이 이동에 불편함만 덜어낼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

성민경: 직접 사진을 찍고 색을 추출해보니 생각보다 자연의 색이 명도나 채도가 높지 않았다. 자연의 색이 자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잘 알게 되었다. 또, 비 온 후나 햇빛이 비칠 때 그 색이 더 맑고 아름답게 보였다.

6. 참고 문헌

<http://gyeryong.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200&menuNo=7020086>

<http://shaeod.tistory.com/565>